

「한국판 디즈니」 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 방기선 1차관, CJ ENM 스튜디오 센터 방문 및 영상 콘텐츠 업계 간담회 개최
- OTT 콘텐츠 세제지원 추가 등 지속 확대 중
-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투자 선순환 및 상생을 위한 정책 노력 지속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월 28일 화요일에 파주 CJ ENM 스튜디오 센터를 방문하고 CJ ENM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K-드라마 등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K-콘텐츠가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의 최일선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CJ ENM,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래몽래인, 필름몬스터, 왓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업계의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의 대표,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개요 >

- ▶ (일시·장소) 3.28.(화) 10:20~11:30, 파주 CJ ENM 스튜디오 센터
- ▶ (참석자) ① 기획재정부 : 1차관, 정책조정기획관, 서비스경제과장
② 업계 : CJ ENM,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래몽래인*, 필름몬스터**, 왓챠
*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 / **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사
③ 유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 차관은 먼저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 위치한 국내 최초(MicroLED), 최대(지름20m) 규모의 영상콘텐츠 제작 시설인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촬영용 가상 배경 등 미래형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을 살펴보았다.

방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콘텐츠가 우리 서비스산업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임을 언급하며 정부도 「신성장 4.0 전략」에서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 중임을 밝히면서, 올해 1조 1,7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여 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방 차관은 K-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작-유통 등 콘텐츠 산업생태계 전반의 투자 선순환 및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였으며, 콘텐츠 IP 개발·확보, 신인 창작자 등 전문인력 육성, 콘텐츠 분야 투자 확대, 국내 OTT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 차관은 금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정민종 (044-215-4614)

